

수정벌·꿀벌 재배 이용 맛·품질 우수한 대봉감 생산

● 11월의 임업인 박문수 젊은농부농원 대표

어분·꿀분 등 미생물 비료 활용 친환경 생산 실천

저탄소·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 브랜드 가치 제고

전남도는 11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대봉감을 재배해 판매하는 박문수(37) 젊은농부 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박문수 대표는 영암 도포면 일원 1.1ha에서 '수정벌'이나 '꿀벌'을 이용해 맛과 품질이 우수한 대봉감을 생산하고

있다. 퇴비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분, 꿀분, 미강 등 미생물 비료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으로 저탄소 인증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5년부터 재배를 시작하면서 생과 유통량 감소에 따른 가공품 개발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저탄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인증을 받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영암 대봉감은 큰 봉우리를 닮아 봉긋하게 위로 솟은 모양과 커다란 크기 덕에 '감 중의 왕'이라 불린다. 가을과 겨울을 대표하는 제철 임산물로 영양과 맛, 쓰임새가 뛰어나 식용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활용된다. 말리거나 숙성시켜 곶감, 홍시, 감말랭이 등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된다.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노화 방지와



전남도의 '11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문수 젊은농부 농원 대표가 재배중인 대봉감을 선보이고 있다.

유망 청년 임업인이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표 과일 선별대회(단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대봉감으로 도전 중이다.

박문수 대표는 "영암 대봉감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조건에서 생산돼 속살이 탱탱하고 차지며 당도가 높아 맛이 좋다"며 "일반적인 홍시 상품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청년층을 겨냥해 잼, 초청, 식초, 소스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봉감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암은 명성과 브랜드 유지를 위해 산림청 제17호 지리표적시제로 등록했다. 영암군은 매년 11월 대봉감 축제를 개최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대봉감 판촉·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정기자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해 갈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박 대표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유기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임업 전문화를 위해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식용곤충 '흰점박이꽃무지' 대량 생산한다

도농기원, ICT 기반 자동화시설 年 760kg 생산 가능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3일 "ICT 기반의 자동화 사육시설을 통해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꽃벵이)' 대량 생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산업연구소는 지난 9월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3

억원을 들여 54㎡ 규모의 스마트팜 곤충 사육시설을 완료했다.

이 시설은 연간 760kg의 흰점박이꽃무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 이송 로봇, 사료 급이, 세척, 분변 분리, 선별 및 환경 제어 등

여러 생산 공정을 모듈화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흰점박이꽃무지는 누에, 메뚜기와 함께 식용으로 널리 사용돼 왔으며 단백질 뿐만 아니라, 간 보호, 혈행 개선 등 다양한 건강 기능성도 갖추고 있어

소비가 많은 곤충 중 하나다.

2017년 곤충산업육성법에 의해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됐고 2019년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육농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먹이원 표준화와 노동력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곤충산업연구소는 저비용 대체 배지 선별과 배지 발효 기간 단축 방법 등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스마트 사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주영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산업연구소 연구사는 "흰점박이꽃무지 사육농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보급형 자동화 사육시설을 개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 제품의 균일화·대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소규모 어가 직불금 확대 오는 22일까지 추가 접수

전남도는 1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 범위에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3천572여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전남농협,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 행사

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와 나주종합스포츠파크서 개최

농협중앙회 전남농협분부는 13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와 지난 11월 전남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가래떡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종택 전남농협본부장,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장에 방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5천여개의 가래떡을 나눠 주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전남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종택 전남농협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가래떡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모습. <전남농협 제공>

농업인의 날(11월11일)은 정부가 지난 1986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올해로 29회를 맞았으며, 전남농협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래떡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박종택 본부장은 "올해 어려운 농

업어건에도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 주신 전남 농업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래떡 나눔을 마련했다"

며 "전남농협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쌀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태호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달여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98,000원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3低
지방
저칼로리
저칼로리

4高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 비타민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